http://dx.doi.org/10.7743/kiss.2013.12.2.011

폐교 활용을 위한 대구지역 폐교의 배치유형 분석에 관한 기초 연구

- 교육과정 변화를 중심으로 -

Basic Study on the Arrangement Type Analysis of Closed School Facility According in Daegu Area

-Focused on the Curriculum Changes -

김 재 영* 이 종 국**

Kim, Jae-Young Lee, Jong-Kuk

Abstract

Since the Standard Design Guide in 1962 and 「School Facility·Facility Standard Regulation」 established in 1969, the elementary school facility in Korea has been amended and complemented. The modern pilot school was started in 1991 and every elementary school facility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modern elementary school from 1994. At present, 8 out of 28 closed schools occurred in the downtown area in Daegu. One of them is located in rent and 7 are used by themselves. The rest 20 schools are located in Dalsung-gun and most of them have old buildings of straight plane shapes built in 1940s. The purpose of this basic study is to pursue the changing process of closed schools based on policy changes of curriculum and to seek the qualitative change when using closed schools. In addition, it is to prepare the using measures when the school close is occurred in the downtown area in the future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plane types according to their types.

키워드 : 교육과정, 폐교, 배치 유형, 대구

Keywords : curriculum, closed school, arrangement type, daegu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초등학교 시설은 1962년 표준설계지침과 1969년에 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이후 14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어 오다가 1991년부터 현대화 시범학교가 추진되어 1994년 이후 모든 초등학교 시설은 현대화 초등학교로 설계되었다.

1997년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기존의 학교 시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표준설계도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바탕으로 계획된 학교들은 시설상의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대구지역은 교육부(http://www.moe.go.kr)의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28개의 폐교 중 8개교가 도심지에서 발생하였고 1개교가 대부, 나머지 7개교가 자체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20개교의 학교는 달성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1940년대에 지어진 노후한 건물로 표준설계도에 의한 일자형의 평면 형태이다.

따라서 본 기초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구시 폐교의 현황과 배치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교육시설의 정책변화에 따른 폐교시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배치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폐교 활용 시 질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향후

이 논문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jklee@kmu.ac.kr)

도심지 폐교 발생에 따른 유형별 시설 활용 연구 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최근 도심지 내에서 폐교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이며 총 8개교가 도심지 내에 위치한다. 총 28개의 폐교 활용 시설 중 매각시설과 1940년도 이전에 건립된 노후 시설은 제외하고 11개 시설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대구지역 입학자 수 변화, 폐교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교사 배치 유형 및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셋째, 선정한 조사대상 시설의 유형 및 배치분석에서 교육과정 별 배치유형을 분류하고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도심지 폐교 활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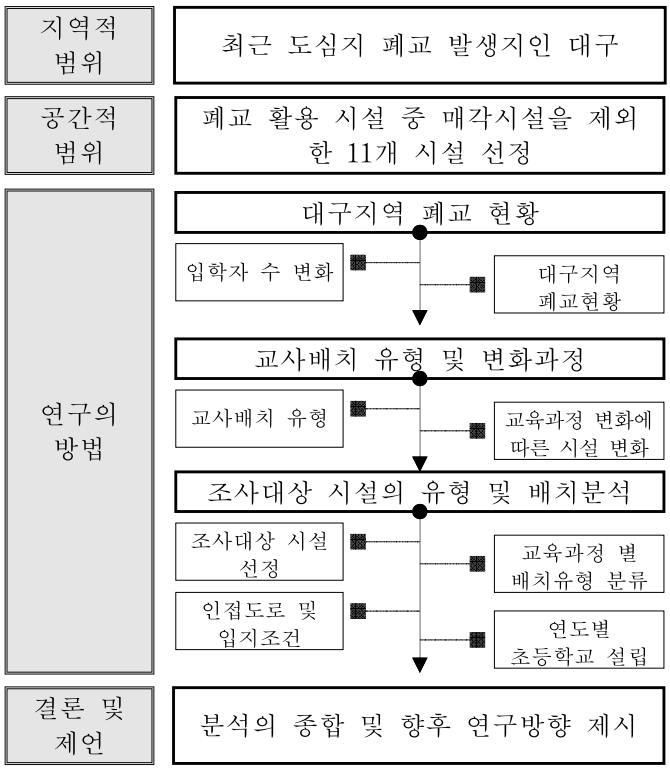


그림1. 연구의 흐름

II. 대구지역 폐교 현황

II-1. 대구지역 학생 수 변화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경제적인 원인 등으로 출산율이 저조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폐교는 이미 대구 도심지역에 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교육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표1. 대구지역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수

(단위 :명, %)

연 도	남학생	여학생	합 계	증감률(%)
2000	20,449	16,449	36,898	-
2001	19,913	16,371	36,284	-1.66
2002	19,668	16,890	36,558	0.76
2003	18,700	16,209	34,909	-4.51
2004	18,156	16,115	34,271	-1.83
2005	17,065	14,395	31,460	-8.20
2006	16,537	14,542	31,079	-1.21
2007	16,223	14,338	30,561	-1.67
2008	14,333	12,807	27,140	-11.20
2009	12,388	10,693	23,081	-14.96
2010	12,459	11,262	23,721	2.77
2011	11,440	10,464	21,904	-7.66
2012	10,714	9,625	20,339	-7.14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위의 표1의 대구지역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수를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12년 까지 총 16,559명, 무려 44.88%가 감소했고, 2008년과 2009년에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및 유휴학교시설 발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II-2. 폐교 현황

폐교시설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내 학교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부차적으로는 지역 내 인구이동과 현대사회의 도시화의 영향도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의 증대, 교육재정상,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폐교, 통·폐합의 형태는 주로 지역 내 학교가 과소화 하여 분교를 본교에 통합시키거나 지역개발을 위해 인근학교로 흡수, 통폐합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폐교 현상은 대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도심공동화가 심한 대구 중구 일부 초등학교의 폐교문제로 서구, 남구, 달서

구 등 중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2002년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는 22만1,454명, 지난해 17만 8,502명으로 19.4% 감소했다. 이에 서구는 40.3%, 남구도 32%나 줄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달서구는 대곡, 성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로 전체 감소율은 22.6%로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옛 주거지인 문제의 3개동은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해 중학교 폐교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표2 는 교육부(http://www.mest.go.kr)의 대구지역 폐교현황 최신자료이다.(2012년 4월)

표2. 대구지역 폐교현황

폐교수 (82년부터)	매각	활용현황시설							미활용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	기타	자체활용	
28	12	2	-	4	-	-	1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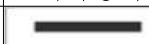
폐교 통폐합이 이루어진 1982년부터 조사시점인 2012년 4월 까지 대구지역 총 폐교 수는 28개이고, 매각 시설이 12, 자체활용 중인 시설이 8개교로 많이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도심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자체 활용되고 있고 달성군지역은 문화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시설 중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환경이 유리한 미술작업실이나 개인 창작스튜디오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II. 교사 배치의 유형 및 변화과정

III-1. 교사 배치의 유형

‘초등학교 교사 동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지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홍재범, 2001)의 논문에서는 학급 수 증가로 인한 교사 동 증축과 교지의 적절한 활용에 따른 국내 초등학교 교사 동 배치형태를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교지 면적과 학급규모에 따른 교사배치계획의 유형에 관한 연구 :2002년 이후 대구광역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주현, 2008)의 논문에서는 학급 규모에 따라 배치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3 과 같다.[1)]

표3. 국내 초등학교 배치 유형

유형	배치형태	특성
-열형		한 동 또는 여러 동의 교사가 일렬로 배열된 형식
工열형		2동 이상의 교사동이 2열로 평행하게 배열되며 교사 동을 연결한 형태
E열형		二열형 교사동의 또 다른 증축형태
ㄱ자형		운동장을 남쪽에 확보하고, 교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채택된 형태
ㄷ자형		교사동의 평면배치 형태가 ㄷ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으로 주로 二열형의 증축 형태

III-2.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설 변화과정

1) 해방 이후 ~ 1차 교육과정기

학교시설은 부지의 북쪽을 점유하며 남향 배치되고, 건물 앞에는 운동장을 남쪽으로 배치한 형태이다. 교사 가운데의 현관 양쪽으로 3~4개의 교실이 붙어있고 양쪽 끝에는 계단실이 있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며 일자형 배치에 편복도형으로서 폭 10m 내외를 유지한다.

2) 2차~5차 교육과정기(1963~1992) :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시설

1962년 학교시설 표준설계도가 제정되고 1967년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이 제정되었다. 1979년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서 ‘보통 교실은 한 학급당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교사는 남측에 배치되며 북측에 복도를 두는 편복도형이 일반적이고 9.0m x 7.5m (67.5㎡) 가 표준형이다. 1980년에는 교사동과 교사 동을 연결시키는 연결 복도로 증축, 확장되었다.

1980년대 문교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설계도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다시 학교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7.2m×9.0m 혹은 7.5m×9.0m의 크기에서 표준 규격 7.5m×9.0m로 통일 시켜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건축하여 왔다. 표준화된 규격 및 설계도로 한교 건축의 환경수준과 시설업무 수준은 높아졌으나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건축을 하게 되었다.

1) 송선영(2010), 초등학교 일반 교사동 배치 결정요소에 따른 사용자 의식조사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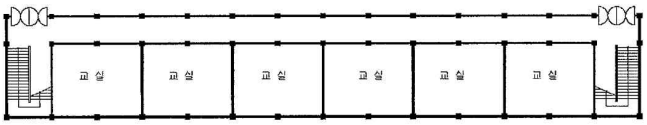


그림2. 1960년대 평면도

3) 6차 교육과정(1992 ~ 2000) :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

1980년대 후반 학교시설 현대화에 관한 건축계획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2년부터 표준설계도 사용 의무조항이 폐지되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시설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이 추진되었다.

교육환경의 변화 및 미래교육을 수용할 교육공간의 창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적 학교 형태 개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이 계획목표였으며 1993년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도니 불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서울시에서 45개 학교가 신설되었다. 1997년 9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규정안」이 공포되어 실별 기준 면적을 삭제하고 학생 1인당 최소면적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해졌다.[2)]

4) 7차 교육과정기(2000~)

2000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국민 공통 교육기본 기간으로 설정하여 학교 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체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통합 및 병립형태의 신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6차 교육과정 까지는 '일반교실+특별교실형'이었으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교실형'으로 바뀌어 전용교실수가 증가함은 물론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가 요구되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교실, 팀티칭을 위한 소규모교실 등과 같이 대, 중, 소의 다양한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재량활동이 신설 및 확대되므로 다양한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5)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007년 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고시한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부분 개정으로 「20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의 차순 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수시로 개정하게 된다. 그로 인해 8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사라지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되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란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등을 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IV. 조사대상 폐교시설의 유형 및 배치분석

IV-1. 조사 대상 선정

조사대상 학교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폐교 시설 중 매각 된 시설을 제외하고 자체활용, 대부 및 임대 되고 있는 시설을 선정하였다. 또한 1940년 대 이전의 노후한 시설은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는 지역, 폐교 명, 위성사진, 설립연도, 폐교연도, 규모(연면적, 대지면적), 활용현황, 비고로 구분하여 다음 표4 와 같이 나타내었다.

IV-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구시 폐교 교사의 향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선 조사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과정 연도별 해당학교 및 배치유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입지조건 분석에서 주변 현황 및 인접 도로 현황 파악을 통해 특성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시설별 면적 및 규모 비교를 통해 도심지에 위치한 폐교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한 폐교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2) 김승제(1995), 새로운 초등학교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표4.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

지역	폐교 명	위성사진	설립 연도	폐교 연도	규모(㎡)		활용 현황	비고
					연면적	대지 면적		
중구	복명초교		1982	1998	3,230	6,165	자체활용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활용
서구	경운초 감삼분교		1983	1996	3,524	5,329	자체활용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활용
북구	도남초교		1949	2000	900	5,271	자체활용	대구예술영재교육원으로 활용
남구	남도여중		1983	1999	10,759	13,736	자체활용	대구광역시 영어교육지원 센터로 활용
달서구	감삼중		1985	2011	6,419	13,328	자체활용	대구시교육연수원이전 ,기존 행복도서관 활용
달서구	대구남중		1987	2012	5,708	14,128	자체활용	글로벌 교육센터로 활용
달성군	대평초교		1960	1997	659	7,947	문화시설	하빈 들소리 보존회 전수관 운영
달성군	서재초 달천분교		1967	1999	874	7,279	문화시설	미술작업장으로 활용
달성군	용계초 정대분교		1945	1994	531	4,846	문화시설	대구미술광장으로 활용
달성군	유가초 한정분교		1944	2007	1,484	15,531	교육시설	로봇 체험장으로 활용
달성군	가창초 우록분교		1945	2007	991	8,158	문화시설	작가창작스튜디오로 활용

1) 교육과정 별 배치유형 분류

다음 표5 는 조사대상 시설을 해당 교육과정 별로 분류하고 그 배치유형을 조사한 표이다.

표에서 조사대상인 11개의 시설 중 교수요목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4개시설로 주로 도심외곽에 주로 위치한 분교가 해당되며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시설은 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배치유형은 교수요목기 해당 시설은 대부분 '一'자 배치이고 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설은 대부분 'ㄱ'자 배치 형태를 가진다. 운동장의 배치는 남도여중, 용계초 경운초 감삼분교, 용계초 정대분교를 제외하고 모두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2) 조사대상시설의 활용현황

조사대상 시설 중 도심지에 위치한 6개교는 모두 자체활용 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연수원으로 활용 되고 있다. 감삼중의 경우 기존의 행복도서관은 그 활용도가 높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그대로 활용하게 되었다. 도시외곽에 위치한 달성군 폐교시설의 경우 유가초 한정분교를 제외한 시설이 모두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입지조건 및 특성상 미술작업장 및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된다. 유가초 한정분교 로봇 체험장의 경우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입지함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었다.

사례에서와 같이 폐교 활용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 입지조건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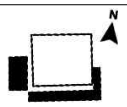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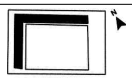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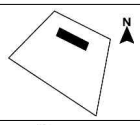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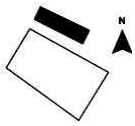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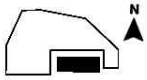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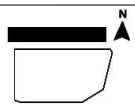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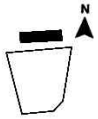
3) 폐교 활용에 따른 배치유형의 특성

① '一' 자 배치

국내 폐교 대부분은 표준설계도에 의한 '一' 자형 배치로서 북측에 복도, 남측에 교실이 위치한 평면형태를 가진다. 주로 교지의 북쪽 끝단에 위치하며, 시 지역은 층수를 높인 1동의 건물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반면, 군 지역은 저층 건물로 되어 있다.

건물이 하나의 동일 경우 교무실이나 교장실 또는 행정실 등 관리실의 위치는 주로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학년용 보통교실은 저층에 고학년용 교실은 주로 고층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교사동의 전면부는 화단과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후면부는

표5. 조사대상 시설의 배치유형 분류

폐교명	교육과정	배치유형	
복명초	4차		ㄱ자 배치
경운초 감삼분교	4차		ㄱ자배치
도남초	교수 요목기[3]		一자 배치
남도여중	4차		ㄱ자배치
감삼중	4차		ㄱ자배치
대구남중	4차		E자 배치
대평초	1차		一자배치
서재초 달천분교	2차		一자배치
용계초 정대분교	교수 요목기		一자배치
유가초 한정분교	교수 요목기		一자배치
가창초 우록분교	교수 요목기		一자배치

놀이 공간 및 주차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동 이상의 증축 시 교사동이 일렬로 같은 선상에 배치된 경우에는 주동 이외의 동은 규모가 현저히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나 학생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동 건물의 중앙부에 관리실이 배치되며, 나머지 부분에 저학년용의 보통교실, 2동 건물에 고학년용 보통교실, 3동 건물에 특별교실 등 기능별로 구분 배치되어 있다.

② 'ㄱ' 자 배치

ㄱ"자형 배치유형은 운동장을 남쪽에 확보하고, 교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채택된 형태를 말한다. 조사대상 초등학교에서 복명초, 경운초 감삼분교, 남도여중, 감삼중이 이에 해당된다.

3) 교수요목기(1946~1954)는 미 군정청이 새로운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194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가 정부수립 후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ㄱ”자형 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배치형태이며, 2개의 교사 동을 “ㄱ”형태로 연결하고, 일반교실을 되도록 남향에 가깝게 배치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교실 등은 남향이 아닌 동쪽에, 그리고 운동장은 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 패턴이다.

③ ‘E’ 자 배치

‘E’자형 배치유형은 “三”열형의 또 다른 증축 형태를 말한다. 대구남중의 교실 동은 ‘E’자의 가로축 방향에, 관리 동은 세로축 방향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자형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교실 동 전체를 남향으로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중심부에 배치된 관리 동에서 모든 교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4) 인접도로 및 입지조건

다음 표6 은 조사대상 시설의 인접도로 수 및 주도로와 부도로의 관계, 입지조건 분석을 통해 대표적 유형을 도출하였다.

서 도시외곽에 위치한 시설은 대부분 1~2면의 도로가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위치한 시설이 3~4면의 도로가 인접해있다. 학교배치에 가장 불리한 형은 1면 인접 도로형으로써 제한된 진입계획이 교사동 및 옥외 공간, 동선계획 등 배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지 선정 시에는 최소한 인접도로가 2면 이상인 대지를 고려해야 하며. 부득이 인접도로가 1면인 경우에는 경관녹지나 녹도 등을 입지선정에서 고려하여 접근성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6. 인접도로 및 입지조건 분석

폐교명	인접도로	입지조건
복명초	3면	도심지에 위치함
경운초 감삼분교	2면	도심지 위치, 주위에 경운중, 달성고가 위치하고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음
도남초	1면	도시외곽에 위치하며 대부분 농경지
남도여중	3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진입도로가 협소한 편임
감삼중	4면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감삼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음
대구남중	4면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접근성이 좋음
대평초	2면	주위 10여 가구가 거주하며
		경부고속도로 옆에 위치
서재초 달천분교	1면	주위 20여 가구 거주,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함
용계초 정대분교	2면	교통이 다소 불편, 계곡과 산지로 이루어져 자연조건이 좋음
유가초 한정분교	2면	주위 40여 가구 거주, 저수지 인근에 위치하며 대부분 농경지
가창초 우록분교	1면	청도군과 대구에 인접, 250여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구-청도 간 도로개통으로 교통 편리

5) 교육과정에 따른 대구지역 초등학교 현황

대구지역의 조사대상 시설의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설립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7 과 같다.

표7. 대구지역 연도별 설립 초등학교 수

연 도	학교 수	교육과정
~ 1991	121	~5차 교육과정
1992 ~ 1999	53	6차 교육과정
2000 ~ 2006	25	7차 교육과정
2007 ~ 현재	12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합계	211	-

※대구통계연보, 대구광역시

5차 교육과정까지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화된 모듈로써 폐교 활용 시 단위 모듈 계획이 용이하다. 표준설계도 조항이 폐지된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설립된 학교는 90개교로써 향후 폐교 활용 시 보다 자유로운 평면 및 공간계획과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표준설계도 이후 설립된 학교 평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시 폐교 교사의 향후 활용을 위한 대구지역의 폐교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교육시설의 정책변화에 따른 폐교시설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폐교 활용 시 질적 변화를 모색하여 향후 대구지역 내 발생 폐교에 대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구지역에의 폐교시설 조사결과 매각 시설

을 제외하고 총 11개의 시설이 활용 중에 있으며 이 중 6개 시설이 도심지, 5개 시설이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설의 설립은 1944년부터 1987년까지이며 도심지 폐교가 대부분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 중 도심지에 위치한 시설은 모두 자체 활용되고 있었고 도시외곽에 위치한 시설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한 유가초 한정분교 로봇 체험장을 제외하고 모두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의 시설 배치 유형에서 교수요목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4개시설로 주로 도심외곽에 주로 위치한 분교가 해당되며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시설은 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배치유형은 교수요목기 해당 시설은 대부분 '一'자 배치이고 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설은 대부분 'ㄱ'배치 형태를 가진다. 운동장의 배치는 남도여중, 용계초 경운초 감삼분교, 용계초 정대분교를 제외하고 모두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인접도로 및 입지조건의 분석에서 도시외곽에 위치한 시설은 대부분 1~2면의 도로가 인접해있고 도심지에 위치한 시설이 3~4면의 도로가 인접해있다. 비교적 진입형태에 따른 다양한 안이 제시될 수 있는 유형은 3~4면 인접도로 형으로써 특히 개방 공간(운동장, 강당, 시청각실, 주차장등)의 영역이 조닝을 이루어 인근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한 배치형태를 나타낸다.

넷째, 대구지역은 표준설계도 조항이 폐지된 6차 교육과정(1992 ~ 1999)시기 이후에 설립된 초등학교 수는 90개교로써 향후 폐교 활용 시 보다 자유로운 평면 및 공간계획과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표준설계도 이후 설립된 학교 평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도심지 폐교의 현황과 기초적인 배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폐교 활용 제시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외곽, 도심지 폐교 시설의 현장방문조사 및 설문조사, 평면을 통한 공간분석을 통해 두 지역 간 차이점을 고려한 폐교 활용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승제(1993), 변하여가는 학교건축, 대한건축학회지
2. 김승제(1995), 새로운 초등학교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 김재영, 이종국(2012),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4. 김재영(2013), 폐교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유형에 따른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송선영(2010), 초등학교 일반 교사동 배치 결정요소에 따른 사용자 의식조사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6. 이호진(1990), 국민 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 문교부

(논문투고일 : 2013.06.26, 심사완료일 : 2013.08.02, 게재확정일 : 2013.08.20)